

대구논공초, 2024년 '환경교육 우수학교' 선정

대구논공초등학교(교장 곽이섭)는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이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속적이고 모범적으로 환경교육을 운영해 온 학교를 선정해 3년간 우수학교로 지정, 지원하는 2024년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선정됐다.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제도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처음 도입돼 올해 3년째를 맞이하는 학교 환경교육 지원 정책 중의 하나이다.

대구논공초등학교는 전국의 초·중·고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 심사에서 울산 온산 중학교,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와 함께 초등학교 부문 최우수 실천교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서와 소정의 포상금을 받았으며 향후 3년간 환경교육도서, 환경교재, 교구, 교원 환경 연수 등의 교육자료와 프로그램을 지원 받게 됐다.

대구논공초등학교는 '친환경 프로젝트로 탄소중립 실천가되기'라

는 환경교육주제로 학년별 친환경 프로젝트 운영, 환경교육 교원전문 학습공동체 조직 운영,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특색을 고려한 친환경 식생활교육 및 자원순환 교육 실천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구논공초등학교는 우수학교 지

정을 계기로 지역사회 특성에 기반한 환경교육을 시교육청의 학교 브랜드 특화 교육, 대구미래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지속적이고 꾸준한 교육활동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자료제공:대구논공초등학교>



(재)달성교육재단-국립대구과학관, 업무협약(MOU) 체결

(재)달성교육재단(이사장 최재훈)은 지난달 23일(화) 국립대구과학관(관장 이난희)과 '달성군의 과학문화 확산 및 창의융합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재)달성교육

재단 이희갑 대표이사과 국립대구과학관 이난희 관장을 비롯해 양 기관의 임직원들이 참석해 지역사회 과학문화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과학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양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공유를 통한 청소년 과학교육 활동 지원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상호 추진 사업에 대한 홍보 협력 등이 있다.

<자료제공:달성교육재단>



동곡초, 여름방학에도 '화상영어 수업'

대구동곡초등학교(교장 남지윤)는 농촌 소재 작은 학교의 영어교육 격차 해소 및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교생을 대상으로 원어민 화상영어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매주 2회, 아침 활동 시간 20분을 활용해 1:1로 원어민과의 대화로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하고 있다. <자료제공:대구동곡초등학교>

CHU

온리U 드라마
드라마와 입 맞CHU다

해외(유럽)드라마 전문 채널

디지털 95번